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여름철 우기 대비 수리시설물 안전점검 완료

✎ 이만재 | ⓒ 승인 2026.06.01 16:54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지사장 전춘희)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관내 주요 수리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재해 위험 요인 파악과 철저한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대승저수지를 비롯한 93개소의 저수지와 황정배수장 1개소를 포함해 총 94개소의 주요 시설물이다. 지사는 지난 5월 20일까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5월 27일에는 황정배수장 가동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배수펌프장의 정상 가동 여부 및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현황을 살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제체의 침하, 균열, 누수, 세굴 및 사면안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문(방류시설)과 전기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자체 안전점검 결과 94개소 모든 시설물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인 시설물 가동과 재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시설물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재 기자



이만재 shilbo@naver.com